



안과

Ophthalm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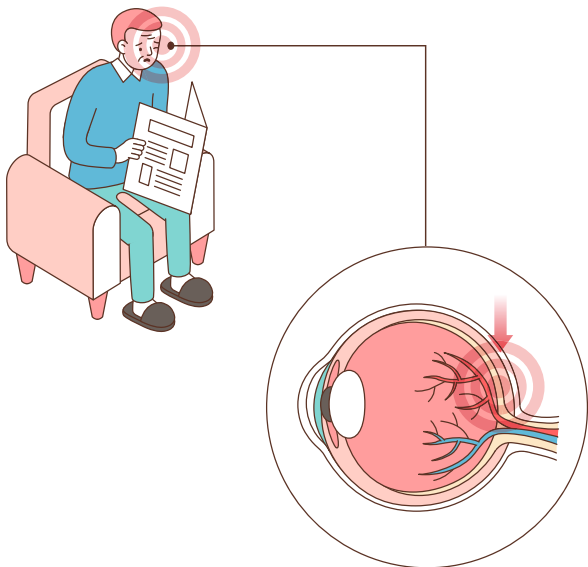
황반변성





황반변성이란?

사람의 눈을 사진기에 비유할 때, 망막은 필름에 해당하는데 망막 한 가운데 작은 부분에 대부분의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며,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여 망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반변성이란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황반부에 유전, 노화, 독성, 염증, 고도근시 등에 의하여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중심시력 저하가 주된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유전적인 경향도 보입니다. 이러한 황반변성 중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경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며 황반변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란 시력에 가장 중요한 황반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병적 변화가 진행돼 결국 실명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으로, 노인층 실명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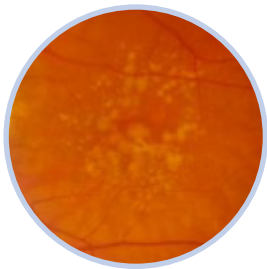




황반변성의 종류 및 치료

건성(비삼출성)

망막 밑에 드루젠이나 망막색소상피의 위축과 같은 병변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흔히 보는 형태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행이 느리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시력상실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또 습성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하여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의 황산화제가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이 알려졌기 때문에 안과에서 안내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은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균형된 식사와 운동을 하시는 것이 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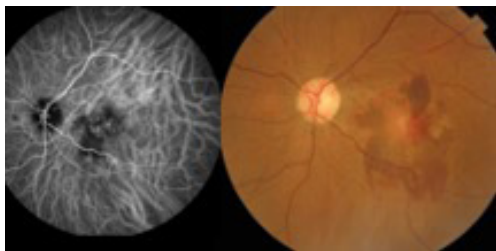


* 「비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으로 좌안 황반부에 드루젠이 관찰됩니다.

습성(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약 10%를 차지하며 망막 아래의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는 경우입니다. 진행이 빠르며, 이러한 신생혈관은 약하고 터지기 쉬워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황반부에 삼출물, 출혈 등을 일으켜서 중심시력을 떨어뜨리고 실명을 초래합니다.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유리체강 내 주사는 많은 임상시험을 통하여 시력 보전과 실명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되어 습성 황반변성의 기본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신생혈관의 촉진 인자인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를 억제하여 신생혈관의 생성 및 삼출물의 누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약물을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고, 반복 주사가 필요합니다. 감염,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황반변성이나 안구내 주사가 효과가 없을 때 광역학요법을 시행하거나 병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환자에서 황반변성이 진행하여 시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이용되는 치료는 황반변성에 의하여 파괴된 시세포를 살리지는 못하며, 더 이상의 시세포의 손상을 막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분으로 좌안 황반부에 망막하액, 출혈, 삼출물,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됩니다.

황반변성의 증상

황반변성 초기에는 환자 스스로 뚜렷한 이상을 찾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글자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굵어져 보입니다. 단어를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보이거나, 그림이 볼 때 어느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행하여 상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보이고 결국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쪽 눈이 잘 보이므로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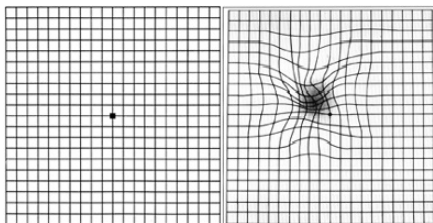
황반변성의 원인과 위험인자

황반변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빈도가 높으며,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인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흡연도 황반변성을 3~5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예방 및 관리

- 금연과 절주가 도움이 됩니다.
- 비타민 A, C, E, 구리, 아연, 루테인, 제아잔틴 등 항산화 물질의 복용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강력한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력 장애가 시작되면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암슬러 격자를 사용하여 자가검진을 수시로 하고, 이상 발견 또는 증상 발생 시 빨리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정상(좌측)에서는 선이 선명하게 직선으로 보이지만 황반변성이 진행하면(우측) 암슬러 격자나 직선을 보았을 때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암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99-0001

의정부

평일 08:00~17:00

대전/노원/강남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을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